

# 오클랜드 성 김대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PASTORAL CENTER  
6226 CAMDEN ST. OAKLAND, CA 94605 WEB WWW.OAKCC.ORG

<b>주임신부</b> Fr. Bartholomew Choi 최기홍 바르톨로메오 (510) 562-3843 email : meoamor@gmail.com  <b>사목회장</b> 영광식 니콜라오 (510) 332-8782 email : myoungkwangsik@gmail.com	<b>사무실</b> Tel (510) 553-9434 Fax (510) 639-4842 email : standrewoak@gmail.com 화, 금 휴무  <b>선종봉사회장</b> 팽현팔 하비에르 (510) 847-3014
---	--

미사	주일미사	오전 8시, 11시 영어미사 : 매월 마지막 주 오후 4시
	평일미사	화, 목요일 오후 7:30 수, 금, 토요일 오전 7:30

성사	고백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사무실에 신청
	혼배성사	3개월 전 사무실에 신청
	환자봉성체	매월 첫 목요일

신심 단체	레지오마리아	매 주일 오전 9시 30분 ~ 10시 30분
	성령기도회	매주 토요일 미사 후 대건회관
	향심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대건회관
	지속적인성체조배	매월 첫 금요일 9PM ~ 토요일 7AM

성시간	매월 첫 목요일 미사와 함께
예비자교리	주일 오전 9시 반 교육관 106호실
주일학교	주일 오전 10시 30분 교육관
한국학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 오후 1시

## < 연중 제32주일/평신도 주일 11월 8일 미사 전례 >

[입 당 송] 시편 88(87), 3 참조

주님, 제 기도 당신 앞에 이르게 하소서. 제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대영광송>

[제 1독서] 지혜 6, 12-16

[화 답 송] 시편 63(62), 2.3-4.5-6.7-8(◎ 2ㄷ 참조)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

○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

○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 잠자리에 들어서도 당신을 생각하고, 온밤 지새우며 당신을 목상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

[제 2독서] 1테살 4, 13-18

[복음환호송] 마태 24, 42.44 참조

◎ 알렐루야.

○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

[복 음] 마태 25, 1-13

[영성체송] 시편 23(22), 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따라 우리는 연중 마지막 주일인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 주일을 ‘평신도 주일’로 지내 오다가, 2017년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 전 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정하면서 한 주일 앞당겨 평신도 주일을 오늘 지내고 있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교회에서 평신도의 역할을 크게 부각하면서 평신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공의회 정신에 비추어 보면 ‘평신도 주일’이라 칭하는 것보다 ‘모든 신자(교우)의 날’이라 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세례를 통해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의 사명이 곧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성직자, 일반 신자 구분이 익숙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라고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성직자나 일반 신자나 자신들의 사명을 이러저러한 이유로 축소하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마치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등은 들고 있으면서 불을 밝히지 않은 채 말입니다. 열심히 혼인 잔치의 집으로 찾아가면서 주어진 기름은 다 사용하고 아직 오지 않은 신랑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도착했다는 만족감에 넋 놓고 있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모습은, 세례로 얻은 사랑이라는 기름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밝히고 서 있어야 할 우리가 사랑으로 채우지 못해 꺼져버린 등을 들고 ‘지금 당장은 오지 않겠지, 이미 할 만큼 했어’ 하고 넋 놓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신 안에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가까운 편의점에서 살 수 없듯이 주님을 만날 때 밝힐 기름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사랑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날 일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나는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각하게 됩니다. 지각한다는 것은 닫힌 문 앞에서 외면당하는 어리석은 여자와 같습니다. ‘왜 진작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나? 이제라도 준비되었으니 문을 열어 주겠지’ 하고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사랑을 실천했으며, 문을 열어 주면 실천하겠다는 다짐도 소용없습니다. 지각한다는 것은 과거의 문제에 매달려 있다는 뜻이고 아직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어서 순간을 살기에 무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순간에 존재해야 합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든 내일도 아닌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밝힌 등불은 그리스도와 의 만남이 이루어졌음의 증표입니다. 등불을 밝힘은 주님의 말씀에 사랑의 실천으로 응답하는 것이며 주님을 향한 믿음은 그 순간에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꺼지고 맙니다.

평신도 주일 그리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주일...  
 그것은 오늘 이 순간 사랑의 실천이라는 기름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일임을...  
 그러니 깨어 밝은 등불을 지금 밝히고 있어야 함을...

“그러니 깨어 있어라.”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등불의 기름은 ‘사랑’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에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떨어져 있음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이미 해 보았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리라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 자

이영주 타대오 신부  
 춘천교구 화천본당 주임

-미사지향

날짜		지향	봉헌자	날짜		지향	봉헌자
11/8(일)	연	정벤자민(대업)	정데레사(혜경)		생	건강체조회원들	권마가렛(재복)
	연	이마르코(재상)	가족		생	윤바로(천호)	육아오스딩
	연	김에드워드(지성)	김케네스 가족		생	정데레사(현남)	김크리스티나(관숙)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로(영국)	11/10(화)	연	고야고보(영재)	임클라라(은석)
	연	전안드레아/정시몬	전마리아/아네스		연	김요아킴(형찬)	가족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생	정데레사(현남)	김크리스티나(관숙)
	연	유데레사(춘성)	가족	11/12(목)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로(영국)
	연	정베드로(창희)	정아가다(청자)		생	이야고보(원진)	이바로(영국)
	연	최모니카(임구)	최안드레아(용석)	11/13(금)	연	김다윗(승우)	황말찌나(정숙)
	연	김프란치스코(범식)	김마리안나(정임)		연	황마르코(문환)	가족
	연	송아벨(성호)	송아네스(성숙)	11/14(토)	연	이세레나(남희)	이바로(영국)
	연	김제이슨(재성)	김케네스 가족		연	전안드레아/정야고보	전알렉산델/스텔라
	연	김모니카	가족		연	주요셉(봉진)	주마리아(정희)
	연	모든성인/세상떠난이	김케네스 가족		연	김아네스(순이)	가족
	연	김중화/이열자	정데레사(혜경)		연	이루이스/문엘리자벳	전데레사(윤자)
	생	조리디아(미경)	김엘리사벳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 우리의 정성

- < 주일헌금 > \$1,728
- < 교무금 > \$3,220
- 이범준(11) 김복희(10-12) 정수영(9-10) 임윤택(11) 강수영(11)
- 소명환(11-12) 권재복(6-12) 이명란(11) 김옥(1-12) 김원덕(11)
- 이영기(11-12) 이옥경(11-12) 유인웅(10-12) 김영자(11-12)

- < 성소후원금 > \$ 60
- 임윤택(11) 소명환(11-12) 이명란(11)

< Bishop's Appeal > -

< 감사헌금 > -

< 빈첸시오 노숙자 돕기 후원금 > \$380

정기환, 김복희, 권재복, 이옥경, 유인웅

< 2020 비전 목표 >

- ♡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 ♡ 신바람 나는 공동체
- (성령의 은총이 가득한 공동체)

< 실천사항 >

1.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
2. 복음을 읽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신앙의 진리를 끊임없이 배우는 공동체
4.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

\* 성당 시설이나 비품을 깨끗이 사용합시다.

◆◆◆◆◆◆◆◆◆◆ 오클랜드 교구 내 한인성당 안내 ◆◆◆◆◆◆◆◆◆◆

트라이밸리 성 정하상 한인 천주교회

St. Paul Chong Korean Catholic Community

주임신부 : Fr. John Kim 김현국 요한사도

주일미사 : 오전 9시(5001 Case Ave. Pleasanton, CA 94566)

평일미사 : 화, 수, 토요일 오전 9시 30분/목요일 저녁 8시

425 Boulder Ct. #400 Pleasanton, CA 94566 사무실 전화 : 925-600-0177 [www.tvkcc.org](http://www.tvkcc.org)

<p>광고문의 사무실 510-553-9434</p>	<p>좋은 사람들, 좋은 이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SHINSEGAE TRAVEL 510-688-0155 이 베로니카 510-688-0157 이 레이몬드</p>	<p>정 태준(안토니오) 자동차정비 &amp; 바디 Work</p> <p>929 38th Ave. Oakland, CA 94601 ☎ 510-552-4418 Fax 510-535-0818</p>	<p>한인 크레딧 유니온은 금융기관입니다.</p> <p>자동차대출, 체크링, 적금 2368 El Camino Real Santa Clara (408) 260-0900</p>
<p>송 이 웅 법 무 (510)292-6050 ldanea.song@gmail.com 1723 Telegraph Oakland</p>	<p>조미정 공인회계사 세금보고 및 회계감사 Business Consulting ☎ (925)803-0200 ☎ (510)504-9250</p>	<p>J &amp; J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와 바디수리 ☎(510) 236-0550 강 요한</p>	<p>맥정(말가리다) 공인세무사 · Income Tax · 세무장부정리 · 신규회사 설립 · 경영, 재정상담 ☎ (510)893-2377 2633 Telegraph Ave. #213 Oakland</p>
<p>대 건 한 의 원 한의학박사 이 준 침·한약·체중조절·통증조절·체질감별·건강상담 401 Roland Way #225 Oakland (510)444-1010</p>	 <p>데비 양(데보라) 보험 3484 Stevens Creek Blvd. San Jose, CA 95117 408-261-1623   Lic.#0G51968</p>	<p>냉장고,세탁기,Oven,Dishwasher TV/Computer Repair (510)896-8348 LVM (510)304-7956 Cell 조승구 요셉</p>	 <p>+성지순례 전문+ <b>ANGEL</b> Tour &amp; Travel, Inc. 757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대표: 이 경혜 안젤라 Tel. <b>213-999-6294</b> e-mail: <a href="mailto:angeltourtravel@gmail.com">angeltourtravel@gmail.com</a> <a href="http://www.angeltourtravel.com">www.angeltourtravel.com</a></p>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공동체